

역대 최강 외국인 4인방 “광주FC 돌풍 기대하라”

펠리페·윌리안·아슬마토프 ‘든든’ 공격수 마르코 영입으로 화력 강화 9일 K리그1 복귀전...새 바람 기대

광주FC가 득점왕과 국가대표 등 최강 전력의 외국인 선수들로 K리그1 돌풍을 일으킨다.

광주는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2020 K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K리그1 복귀전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광주는 든든한 ‘외국인 4인방’을 앞세워 K리그1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일단 지난 시즌 광주의 K리그2 우승을 이끈 외국인 선수들이 건재하다.

득점왕을 차지하며 광주의 화력을 책임졌던 펠리페와 수비에서 우승을 이끈 아슬마토프, 그리고 재치 있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윌리안이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노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임대 영입됐던 하치요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광주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를 영입하면서 화력을 강화했다.

펠리페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광주의 얼굴이자, K리그1이 주목하는 선수다.

지난 시즌 펠리페는 초반 5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으며 광주의 우승 행보에 불을 지폈다. 27경기에 나와 19골 3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2 득점왕에도 올랐다.

193cm의 큰 키를 이용한 강력한 헤더는 물론 양발을 활용한 무결점 공격이 펠리페의 강점이다. 지난해 3월 10일 아산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머리와 왼발, 오른발로 세 골을 넣으면서 구단 최초로 ‘퍼펙트 해트트릭’도 기록했다.

펠리페는 “K리그1은 더 빠르고 거칠다. 나에 대한 압박도 거셀테지만 열심히 준비했기에 자신 있다”며 “다들 나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 팀이 우선이다.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시즌 25경기 8골 2도움을 기록한 윌리안은 현란한 드리블과 돌파, 적극적인 수비가담으로 측면을 움직였다.

아슬마토프는 광주의 리그 최소실점(36경기 31실점)을 이끈 주인공이다. 탄탄한 대인마크와 경기 운영으로 광주의 수비를 책임진 그는 시즌 말에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에 재승선하며 나라를 대표해 뛰기도 했다.

마르코는 더 빠르고, 더 강한 K리그1 무대를 위해 선택한 광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현재 코스타리카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마르코는 2014 브라질월드컵(8강), 2016 코파아메리카, 2018 러시아월드컵 등 메이저대회에서 맹활약하며 67경기 15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FK쿠반크라스노다르(러시아 1부), FC브렌비(덴마크 1부), 로스앤젤레스FC(미국 1부) 등 유럽과 미국 리그에서 활약했던 만큼 새로운 리그에 대한 자신감도 넘친다.

마르코는 뛰어난 스피드와 드리블, 결정력은 물론 침투패스와 동료들을 활용한 연계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다. 공격시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펠리페, 윌리안과의 호흡이 기대되는 이유다.

역대 최강의 조합을 자랑하는 외국인 4인방이 광주의 K리그1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FC의 외국인 선수 4인방 펠리페(왼쪽부터), 윌리안, 아슬마토프, 마르코가 K리그1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 세계 축구팬 시선 전주로 쏠린다

K리그 내일 개막...한국프로축구연맹, 유튜브·트위터 통해 해외 생중계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쏠린다.

2020 K리그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망의 막을 올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개막전을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해외로 생중계한다.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K리그 개막을 알리고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홍보 프로모션으로 2020시즌 K리그 타이틀스폰서인 하나은행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다.

연맹은 국내 TV채널 및 포털사이트 중계화면과 별도로 영어 자막과 해설을 입힌 화면을 유튜브와 트위터에 송출할 예정이다.

영어 자막과 작업은 K리그 미디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영어 해설은 월드컵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호주 A리그 중계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인 해설자 사이먼힐이 호주 현지에서 원격으로 진행한다.

유튜브와 트위터를 위한 생중계는 이번 공식 개막전에 한해 이뤄지지만, K리그 2020 전 경기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올 시즌 K리그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경기가 생중계된다.

또한 올 시즌 K리그의 국내 뉴미디어 중계권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텐츠-팀트웍스 컨소시엄은



전주월드컵경기장

KT 시즌(Seozn), 유플러스티비 모바일, 트위치, 웨이브 등 여러 뉴미디어 플랫폼들과도 중계권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시즌 K리그는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을 만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PL 재개 준비에...팀 주치의들 ‘100가지 우려’ 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2개월이 지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재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클럽 주치의들이 리그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6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과 영국 BBC와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EPL 팀 주치의들은 최근 리그의 마크 질렛 의무 고문과 리처드 갤릭 경기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리그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각 클럽 주치의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취합해 작성된 이 편지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100가지 질문

과 잠재적 문제를 열거하며 재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치의들은 “우리도 확신이 없는 일에 대해 선수와 스태프를 안심시켜야 하는 점은 개별 의무임엔 큰 압박이다. 미지의 바이러스와 관련된 운영 정책이 선수와 스태프들이 동의할 거라 기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사망 위험을 수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사로서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가”라며 관련 대책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주치의들은 땀이나 골키퍼 장갑을 통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흑인이나 아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위험성 증가, 선수가 감염됐을 경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이나 보험 보상에 대한 확답이 필요한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다수 팀이 개별 훈련을 위주로 재개 준비에 나선 가운데 이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클럽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 점 등도 지적했다.

3월 13일 중단된 프리미어리그는 6월을 목표로 재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6월 12일이 유력한 재개 일자로 거론된다. 실전 준비를 위해 각 팀은 4주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6월 12일로 확정된다면 이달 중순에는 완전한 팀 훈련이 시작돼야 한다.



전남 장애인선수들에 희소식

전남장애인체육회, 한전KDN과 취업연계 체결식...직장 얻고 운동 전념 가능

전남장애인 선수들이 직장을 얻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전남장애인체육회와 한전KDN은 6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한전KDN과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 상생 취업연계 체결식’을 열었다. <사진> 체결식에는 남백원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한전KDN 백성필 인사노무처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전남장애인 체육회 선수 8명이 한전KDN에 취업하게 된다. 김동-위장권(이상 탁구), 김종일-정승원-방민자-민병석-차진호-박용철(이상 컬링)씨 등이다.

한전KD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

래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장애인 선수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개척하기 위해 선수 취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지사와 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체육선수 취업에 대한 기업체 홍보와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36명의 선수가 취업을 통해 6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아,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이 취업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원하던 우수선수 지원비를 다른 우수 선수에게 줄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나달 “2021시즌 준비할 때...올해는 테니스 재개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등 스포츠 일정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지만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올해 안에 테니스 일정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AP통신 등은 6일 나달이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 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나달은 인터뷰에서 “나도 빨리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매주 대회 장소로 이동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숙소를 써야 하므로 올해는 사실상 투어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5월로 예정된 프랑스오픈이 9월로 미뤄졌고, 6

월 월별던은 1945년 이후 75년 만에 취소됐다.

8월 31일 개막하는 일정인 US오픈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옮겨 11월에 여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나달은 “올해 하반기에 어떤 대회가 열릴 것인지보다 2021년 1월 호주오픈에 더 관심이 간다”며 US오픈, 프랑스오픈의 개최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전망했다. 1986년생인 그는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가 때문에 앞으로 남은 날이 많은 20세 때보다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안타까워하며 “지금은 2021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3관	마이 스파이, 프리즌 이스케이프, 헌터드 파크
4관	라라랜드, 알리타: 배틀 앤젤
5관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9관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마션
7관	패왕별희 디오리자널, 1917
8관	마이 스파이, 저 산 너머, 리벤지 슈팅걸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